

#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불안의 매개효과와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Influence of Cyber Bullying Victimization on Cyber Bullying*

: Mediating Effects of Anxiety and Moderation Effects of Stress Coping Strategy

Jin Oh Choi\*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1095 Dalgubeol-daero, Daegu,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yber bullying victimization of elementary students on their cyber bullying behaviors, and the mediating and moderation effects of anxiety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Research data gathered from 970 4-6th elementary students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yber bullying victimization could increase anxiety and cyber bullying. Second, the mediating effects of anxiety and moderation effects of rational coping strategy were verifi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 order for cyber bullying victim not to do cyber bullying behaviors, counselling to alleviate their anxiety and training about stress coping strategies are necessary for the victim.

**Key words:** cyber bullying victimization, cyber bullying, anxiety, stress coping strategy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불안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매개,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초등학교 4-6학년 970명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이버불링 피해와 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와 합리적 대처전략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버불링 피해가 가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선 불안완화를 위한 상담과 스트레스대처전략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 Tel. +82-53-580-6338. E-mail. chojin5@kmu.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Mar. 16, 2015 / Revised: Mar. 31, 2015 / Accepted: Apr. 20, 2015

주제어: 사이버불링 피해, 사이버불링 가해, 불안, 스트레스 대처전략

## I. 서론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학교폭력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총 10,662건으로 2013년에 비해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재현, 2015). 특히,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2013년 상반기에 비해 약 4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교육부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다(이정혁, 2014).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형태와 피해는 매우 다양하고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가하는 물리적 폭력에서부터, 언어적으로 괴롭히는 언어폭력,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거나 직접적으로 가해하는 성폭력, 여러 명이 한 명을 따돌리는 집단 따돌림, 흔히 뺑서틀이라 불리는 강제적인 심부름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도중진·박광섭·박행렬, 2012). 이러한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견디지 못할 경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사이버불링이란 사이버 상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언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괴롭히고 강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오세연·곽영길, 2013).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 20% 이상이 사이버불링 피해 또는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4)의 201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폭력 유형은 201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이버불링의 경우 전년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불링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이버불링의 급격한 증가는 아동,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활용 확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상률·김형주·성은모, 2013). 2010년 스마트폰 사용 청소년의 비율이 6%에 불과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활용확대는 청소년들의 인간관계 또한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면대면 방식의 행동과 대화가 또래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의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SNS를 이용한 사이버상에서 관계가 또래관계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이러한 사이버상에서의 맺어지는 또래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사이버상에서의 관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이버불링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가상준·김강민·임재형, 2013).

사이버불링은 피해자에게 전통적인 학교폭력 못지않은 피해를 일으킨다. 우선, 사이버불링은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좌절감을 유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정서적 황폐화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여주·김동일, 2012). 또한 자기통제나 자기조절능력을 훼손시키고 자존감을 심각하게 저하시켜 정신적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igby, 2008; Williams·Cheung & Choi, 2000). 이러한 피해가 심해질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과 충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 까지 이르기도 한다(Hinduja & Patchin, 2010; Ybarra·Mitchell·Wolak & Finkelhor, 2006).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은 다른 전통적인 학교폭력 이상으로 빠른 조치와 지도가 요구된다.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상으로의 접속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된 상황에서 사이버불링은 앞으로 더욱더 증가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의 발생원인과 그 기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불링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떠한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의 피해와 가해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사이버불링 피해 청소년이 동시에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최근의 연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경은, 2013; 성동규·김도희·이윤석·임성원, 2006; 이고은·정세훈, 2014; Vandebosch & Van Cleemput, 2009).

국내에서는 성동규 외(2006), 김경은(2013), 이고은, 정세훈(2014)의 연구에서, 해외에서는 Vandebosch & Van Cleemput(2009) 등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 피해와 가해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사이버불링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어떠한 매개를 거쳐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러한 관계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조절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매개변인과 조절변인을 찾는 것은 사이버불링 피해가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적 필요성에 반해 사이버불링 피해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변인이 매개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의 피해와 폭력 가해행동과의 관계 또는 사이버불링 피해와 폭력행동과의 관계, 스트레스와 폭력행동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공격성, 우울 등이 매개효과를(김경은·최은희, 2013; 김재엽·이순호, 2011; 이윤호·배정환, 2012; 조운오, 2013), 부모관계, 자아개념, 스트레스 대처전략 등이 조절효과를(임성택·김성현, 2007; 조아미, 2014; 조한익·조민경, 2013) 나타낼 것이라 추정해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불안은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을 이어주는 또 다른 중요한 매개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불안의 경우 외부 스트레스(external stressor)에 대한 반응의 한 형태로

공격/도피(Fight or Flight) 반응에서 나타나듯이 뇌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공격성과 불안은 동일한 뇌 부위에서 관장되며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ansen · Van Nguyen · Karpitskiy · Mettenleiter & Loewy, 1995; Schirmer & Kotz, 2006). 따라서 사이버불링 피해가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공격성이 매개역할을 한다면 불안 또한 매개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이버불링 피해가 하나의 주요한 스트레스 변인이라면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사이버불링 피해가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해줄 수 있는 주요한 조절변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 피해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 불안의 매개효과와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조절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초등학생들의 사이버불링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사이버불링 피해, 가해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의 대부분이 중, 고등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 II. 선행연구검토

### 1. 사이버불링의 정의와 실태

사이버불링이란 온라인 상에서 SNS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언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괴롭히고 강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유사한 개념으로 사이버따돌림, 사이버괴롭힘, 사이버폭력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오세연 · 광영길, 2013). 사이버불링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학교폭력과 다르지만 가해행동이 의도적이라는 것과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된다는 점,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하고자 하는 악의적 행동이라는 것과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나타낸다(Hinduja & Patchin, 2008).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불링 피해 또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4)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사이버불링 피해 내용으로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등을 경험한 것이 4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악성댓글이 18.6%, 위협이나 협박이 15.9%, 사이버 상에서의 집단따돌림이 15.9%, 신상정보 무단유포가 4.6%, 성적인 폭력을 당한 경우도 1.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매체로는 의사소통 메신저(예: 카카오톡 등)가 41.6%로 가장 많았고, SNS(34.5%), 게임홈페이지(10.6%)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민지(2013)는 한국인터넷진흥원(2012)의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불링의 특징을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저연령화이다. 조사결과 악성댓글,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이버불링 행위를 가장 많이 한 연령대는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초등학생의 사이버불링 가해경험도 3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 세 명 중 한 명은 사이버불링 가해행

등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이버불링에 대한 문제의식의 결여이다. 아동, 청소년들의 경우 사이버불링을 하나의 놀이 썸으로 여기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7.5%가 사이버불링을 한 이유로 재미나 호기심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 결여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사이버불링 피해의 일반화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사이버불링이 학교를 넘어서 사회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단 사이버불링의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신상털기, 여론몰이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젠 연예인이나 스포츠맨 같은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이버불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넷째, 전통적 학교폭력과 연계이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지도와 제재를 강화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학교폭력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감소부분을 사이버불링이 대체하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최진오, 2013). 사이버불링의 경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 학교폭력과 연계될 경우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사이버상에서의 인간관계가 더욱더 확대되고 중요시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사이버불링 피해와 가해는 더욱더 증가되리라 예상된다.

## 2.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행동과의 관계

아직 충분하지는 않으나 사이버불링의 피해와 가해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몇몇 연구들은 사이버불링 피해가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성동규 등(2006)은 만 10-19세까지 청소년 1,382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유발시키는 변인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된 바에 따르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나이, 인터넷 이용시간,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은(2013)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폭력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경기, 충청, 호남지역 중, 고등학교 학생 1,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불링피해, 학교폭력 피해, 가정폭력 피해가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고은·정세훈(2014)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중 언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서울지역 중, 고등학생 51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언어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Vandebosch와 Van Cleemput(2009)는 2,052명의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아동들은 사이버폭력의 가

해행동을 하거나 다른 친구들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할 때 방관자가 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 피해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학교폭력의 피해가 사이버불링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나 사이버불링 피해가 학교폭력 가해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사이버불링 피해 또한 사이버불링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김종길(2013)은 서울, 경기지역 중, 고등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경험과 학업스트레스가 사이버불링 가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폭력 피해경험과 학업스트레스 모두 사이버불링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폭력 피해경험 중 신체적 폭력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상인·권남희(2013)는 경기지역 중학생 342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부모에게서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경우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 3.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 및 조절변인

아직까지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어떠한 매개과 조절변인이 존재하는지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에 미치는 과정이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과정을 대해 분석한 연구를 통해 사이버불링 피해가 가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매개변인과 조절변인에 대해 추론해볼 수 있다. 우선 매개변인에 대해 알아보면 김경은·최은희(2013)는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경기, 충청, 호남지역 중·고등학생 1,303명을 대상으로 분석할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은 사이버불링 피해, 가해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나타냈는데 특히, 공격성이 매개가 될 경우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운오(2013)는 서울지역 초·중·고교생 2,044명을 대상으로 전통적 학교폭력과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우울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조사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우울감이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울감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발생한 우울감이 비행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폭력 피해경험이 가해경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 경우에도 공격성은 폭력피해경험이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매개효과를 나타낸다. 김민정(2010)은 대구지역 중학생 567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 있어 공격성은 주요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재엽·이순호(2011)는 전북지역 중·고등학생 93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조사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경우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공격성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운호·배정환(2012)은 전국의 청소년 2,187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격성을 포함한 적대감의 매개효과를 조사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경험 중에서도 직접적인 가정폭력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공격성을 포함한 적대감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별변인을 살펴보면 이웅택·유난영·주현주·임승희(2014)는 초·중·고교생 2,516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피해가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피해는 가해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관계 중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학교폭력 피해가 가해로 이어지는 관계를 조절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아미(2014)는 초등학교 5-6학년생 588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가 가해로 이어지는 관계에 있어 부모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가 가해로 이어지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택·김성현(2007)은 초, 중, 고생 1,191명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받는 가정, 학업스트레스 등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한 이러한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조사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받는 스트레스들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이러한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미리·최운진(2007)은 중학생 274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가정, 학교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폭력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러한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연구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는 폭력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에 있어 정서조절 대처전략의 조절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한익·조민경(2013)은 중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가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와 이러한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연구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높고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가 가해로 이어지지 않았던 반면, 낮고 불안정한 자존감을 가진 경우 학교폭력 피해가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철·백석기(2014)는 초등학교, 중학생 379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이러한 관계에서 학생들이 적응유연성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응유연성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높은 청소년들에 비해 가정폭력 피해가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폭력피해 경험이 폭력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우선, 폭력피해를 경험한 아동들의 경우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 가해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스트레스와 범죄의 관계에 있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이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설명하는 Agnew의 일반긴장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이정환·이성식, 2014).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사이버불링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의 경우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이버불링 피해에 의한 스트레스(긴장)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유발한다면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사이버불링 피해가 가해로 이어지는 관계를 조절해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 피해행동이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있어 불안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 이러한 구조적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 III. 실증분석

#### 1.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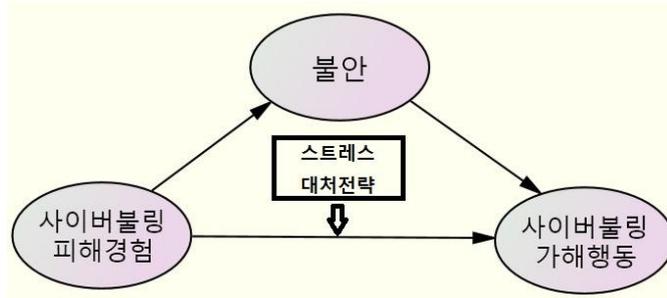
##### 1) 연구모형과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영향에 있어 불안의 매개효과와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 불안의 매개효과와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한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불링 피해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사이버불링 피해가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불안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셋째, 사이버불링 피해가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가?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970명이다. 편의표집 방법에 의해 선정된 서울, 인천지역 4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학급별 재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관리자에게 배송되었으며 각 학급담임 교사가 학생들에게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982부 중 한 척도이상 응답하지 않거나 모든 척도를 한 번호로 적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분석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970부가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

개인변인	세부영역	인원수	합계
성별	남학생	531	970
	여학생	439	
학년	4학년	261	970
	5학년	295	
	6학년	414	

## 3) 연구도구

### (1) 사이버불링 피해 및 가해행동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 피해 및 가해행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ampfield(2008)의 CBVQ(Cyber Bullying & Victimization Questionnaire)를 최진오(2013)가 의역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CBVQ는 아는 사람에 대한 사이버불링 피해행동 14문항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해)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있다. 각 설문문항은 5점 척도를 이용해 자기평가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각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피해 또는 가해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사이버불링 피해 및 가해행동 측정도구의 내적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사이버불링 측정도구 내적신뢰도

대영역	소영역	문항수	Cronbach' α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	5	.767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	9	.769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모르는 사람에 대한 가해	5	.686
	아는 사람에 대한 가해	9	.743

(2) 불안수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불안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rimaher, et. al.(1997)의 Screen for Child Anxiety Related Emotional Disorder(SCARED)를 김민정(2010)이 타당화한 한국판 아동, 청소년 불안장애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범불안증, 사회불안증, 분리불안증, 공황 및 신체화, 학교공포증의 5개 영역 총 3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불안수준 측정도구의 내적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불안수준 측정도구 내적신뢰도

영역	문항수	Cronbach' α
범불안증	13	.874
사회불안증	7	.849
분리불안증	6	.799
공황 및 신체화	10	.862
학교공포증	3	.711

(3) 스트레스 대처전략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아동들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조봉환(2006)의 초등학교생용 스트레스 대처전략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5개 영역(인지적 재구조화, 합리적 문제해결, 사회적지지, 충동적 대처, 회피적 대처)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역 간 내적일치도가 높은 인지적 재구조화와 합리적 문제해결을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 '합리적 대처'로, 충동적 대처와 회피적 대처를 하나로 묶어 '충동-회피적 대처'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스트레스 대처전략 척도의 내적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스트레스 대처전략 측정도구 내적신뢰도

영역	문항수	Cronbach' α
합리적 대처	7	.917
사회적 지지	4	.851
충동-회피적 대처	6	.784

4) 연구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및 가해행동, 불안의 측정변수 및 측정변수 간 관계의 적합성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적 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해행동, 불안 간의 종합적 관계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 설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수지수인 카이제곱( $\chi^2$ ) 통계량과 RMSEA, 증분적합지수인 CFI, TLI, 상대적합지수인 RFI 지수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의 경로분석을 통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불안수준에 미치는 영향, 불안수준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넷째,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불안수준의 매개효과 범위를 검증하기 위해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비교분석하였다. 다섯째,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불안수준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분석(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불링 피해가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 17.0, AMOS 18.0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

2. 연구분석의 주요내용

1)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각 측정변수들의 기술적 분석과 정규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나타나 정규분포가정과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사이버불링 피해1	사이버불링 피해2	사이버불링 가해1	사이버불링 가해2	범불안증	사회불안증	분리불안증	공황 및 신체화	학교공포증
사이버불링피해1	1								
사이버불링피해2	.795**	1							
사이버불링가해1	.615**	.478**	1						
사이버불링가해2	.475**	.289**	.785**	1					
범불안증	.330**	.269**	.285**	.186**	1				
사회불안증	.137**	.096**	.183**	.110**	.555**	1			
분리불안증	.161**	.158**	.093**	.045	.492**	.415**	1		
공황 및 신체화	.161**	.150**	.242**	.200**	.440**	.273**	.390**	1	
학교공포증	.208**	.216**	.230**	.118**	.411**	.296**	.332**	.474**	1
평균	2.690	2.213	2.551	2.184	1.527	1.612	1.429	1.122	1.141
표준편차	.508	.511	.322	.461	.394	.500	.426	.268	.303
왜도	2.143	2.377	1.758	2.590	.800	.683	1.206	.627	2.162
첨도	5.267	5.570	2.962	7.498	.348	-.218	1.011	-.567	4.567

\*\*p < .01.

2) 연구모형 적합도 분석

다음으로 설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절대적합지수인  $\chi^2(24)=111.890$ , RMSEA=.064, 상대적합지수인 RFI=.947, 증분적합지수인 CFI=.972, TLI=.958로 나타나는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6> 연구모형의 적합도

$\chi^2$	df	RFI	CFI	TLI	RMSEA
111.890	24	.947	.972	.958	.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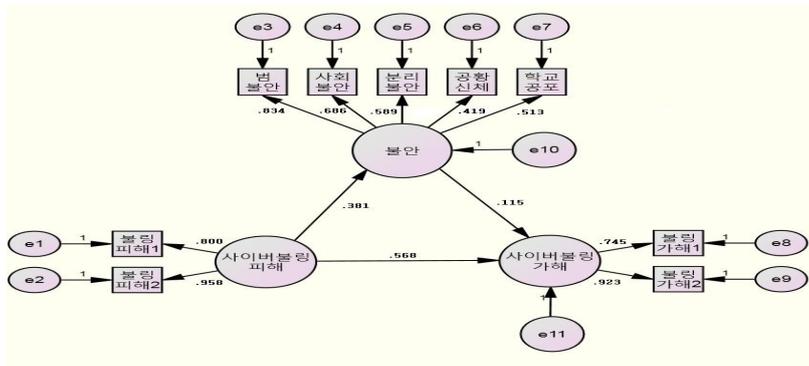
3) 구조모형분석

설정된 연구모형이 적합한 수준으로 검증되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불안,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불안,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568, p < .001$ ). 마찬가지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증가할수록 불안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81, p < .001$ ). 또한 불안이 증가할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eta = .115, p < .001$ ). 각 잠재변수 및 측정변수 간 경로계수는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7>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715	.568	.038	18.584***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 불안	.540	.381	.053	10.224**
불안 →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103	.115	.027	3.839***

\*\*p < .01. \*\*\*p < .001.



<그림 2> 사이버불링 피해, 가해 및 불안 간의 구조적 관계

4)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불안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비교하여 보았다. <표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부분매개모형은  $\chi^2(24)=111.890$ , 완전매개모형은  $\chi^2(25)=470.911$ 로 나타나 자유도 1의 증가에 따른  $\chi^2$ 값의 차이가  $\Delta\chi^2(1)=359.021$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자유도 1의 증가에 따른  $\chi^2$ 값의 차이 3.84 이상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5 에 있어 부분매개모형이 경쟁모형인 완전매개모형 보다 바람직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배병렬, 2011).

<표 8>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chi^2$	df	RFI	CFI	TLI	RMSEA
부분매개모형	111.890	24	.947	.972	.958	.064
완전매개모형	470.911	25	.800	.867	.809	.136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부분매개모형을 스마트폰 피해경험이 스마트폰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하였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불안의 추정값이 95%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불안을 증가시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경로	추정값	표준오차	p	95% 신뢰구간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 불안 →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044	.013	.003	(.024, .071)

5)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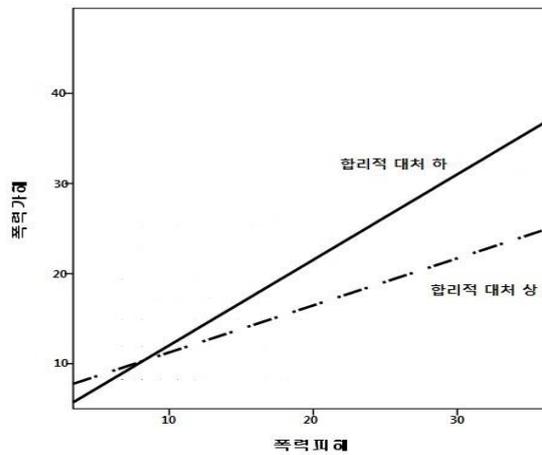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합리적 대처전략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우선 1 단계에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을,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합리적 대처전략을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 대처전략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합리적 대처전략 수준에 따라 상, 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사이버불링 피해가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집단 간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림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합리적 대처전략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

타났다.

<표 10>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합리적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단계	변수	B	$\beta$	t	R <sup>2</sup>	F
1단계	사이버불링 피해(A)	.766	.630	24.602***	.397	605.270***
2단계	사이버불링 피해(A)	.769	.633	24.752***	.399	306.942***
	합리적 대처전략(B)	-.002	-.060	-2.364*		
3단계	사이버불링 피해(A)	1.042	.857	11.878***	.406	210.528***
	합리적 대처전략(B)	.005	.119	1.994*		
	A × B	-.014	-.306	-3.318**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합리적 대처 수준에 따른 사이버불링 피해와 가해행동 간의 관계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 전략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우선 1단계에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을, 2단계에서 사회적 지지 전략을,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사회적 지지 전략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 전략의 조절효과

단계	변수	B	$\beta$	t	R <sup>2</sup>	F
1단계	사이버불링 피해(A)	.766	.630	24.602***	.397	605.270***
2단계	사이버불링 피해(A)	.766	.627	24.346***	.394	298.997***
	사회적 지지(B)	.001	.008	.316		
3단계	사이버불링 피해(A)	.839	.687	11.474***	.394	199.793***
	사회적 지지(B)	.005	.070	1.140		
	A × B	-.009	-.094	-1.110		

\*\*\* p < .001.

마지막으로 충동-회피적 대처전략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1단계에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을, 2단계에서 충동-회피적 대처 전략을,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충동-회피적 대처 전략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충동-회피적 전략의 조절효과

단계	변수	B	$\beta$	t	R <sup>2</sup>	F
1단계	사이버불링 피해(A)	.766	.630	24.602***	.397	605.270***
2단계	사이버불링 피해(A)	.730	.600	22.712***	.403	312.256***
	충동-회피적 대처(B)	.005	.105	3.978***		
3단계	사이버불링 피해(A)	.696	.572	8.216***	.403	208.047***
	충동-회피적 대처(B)	.004	.083	1.427		
	A × B	.002	.041	.428		

\*\*\* p < .001.

## IV. 논의 및 제언

### 1. 논의

#### 1)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련의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김경은, 2013; Vandebosch & Van Cleemput, 2009).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다음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학습으로 인한 전이이다. 학습에 의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설명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사회학습이론이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폭력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학습의 결과로 폭력환경에 노출되었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폭력행동을 학습한다고 주장한다(오미영, 2008; 유상미, 2010). 사회학습이론에서는 특히 차별적 접촉에 의한 폭력행동의 학습을 강조한다. 차별적 접촉이란 일탈행위를 하는 개인이나 집단과 얼마나 직접적인 접촉이나 상호작용 했는지 그 정도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특정 일탈행위를 보고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기저에 깔린 규범이나 가치 또한 이러한 차별적 접촉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이 중요하다(이고은·정세훈, 2014).

이를 사이버불링 상황에 적용해보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또한 학습의 결과로 사이버불링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었던 아동들이 이와 유사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단순히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모방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불링을 하나의 놀이나 장난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까지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버불링 피해아동들이 이러한 잘못된 관점 속에서 사이버불링 가해자로 바뀌지 않도록 빠른 조치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이버불링이 갖는 특성 중 하나인 익명성이 사이버불링 피해가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인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측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힘의 위계가 뚜렷하지 않으면 발생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사이버폭력의 경우 익명성을 바탕으로 실제상황에서는 힘의 위계에서 약자인 대상이 쉽게 사이버불링의 가해자로 변할 수 있다(남수정, 2011; 이성식, 2005). 특히, 초등학생들의 경우 신체적인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힘의 위계에서 약자가 되기 쉽다. 따라서 전통적인 학교폭력의 과정에서는 피해를 입더라도 이러한 피해가 바로 가해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이에 반해 사이버불링의 경우 이러한 익명성 때문에 힘의 위계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불링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2)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불안의 매개효과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불안은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고 동시에 불안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불링을 포함한 폭력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나 다른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격성, 우울등과 같은 정서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흐름을 같이하는 것이다(김경은·최은희, 2013; 김민정, 2010; 김재엽·이순호, 2011, 이윤호·배정환, 2012; 조윤호, 2013).

사이버불링 피해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불안의 매개효과를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이론이 바로 일반긴장이론이다.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폭력피해를 경험한 대상들은 마음에 심리적 긴장상태(스트레스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폭력가해행동을 하게 된다(이정환·이성식, 2014). 이를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보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추정 가능하다. 우선 사이버불링 피해를 경험하게 되면 마음 속에 불안감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불안감은 심리적, 정서적 긴장상태를 만들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 3)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영향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외부스트레스가 학교폭력 또는 폭력행동으로 이어지는 영향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조절변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정부분 흐름을 같이하는 것이다(이미리·최윤진, 2007; 임성택·김성현, 2007).

스트레스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란 스트레스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해결방법 모색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현실적이며 타당한 결과가 예측되는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하기 위한 모든 인지적, 행동적 시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자기반성적 과정을 포함한다(조봉환, 2006; 홍지수, 2006).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해 합리적인 대처를 시도하는 학생들은 사이버불링 피해라는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였을 때 이러한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비합리적인 시도를 하기 보다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들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사이버불링 피해가 사이버불링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추정은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비합리적인 대처가 스트레스 상황을 더욱더 가중시킬 수 있는 반면, 합리적인 스트레스 대처와 사고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김정호, 2002).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버불링 피해 아동이 가해자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평상시 아동들이 스트레스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을 연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불링 피해를 상담하거나 지도함에 있어 무엇보다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도하는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을 가진 많은 아동들이 동시에 사이버불링 가해자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교육적, 상담적 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사이버불링 가해아동을 지도함에 있어 가해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긴장상태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상담적 조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이버불링이나 다른 폭력피해에 의한 심리적 긴장상황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심리적 긴장상태에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한 아동들의 지도는 다른 일반 사이버불링 가해아동들과는 달리 심리적 긴장해소 방법을 포함한 상담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들에게 외부 스트레스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전략들을 평상시 교육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 평상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을 경우 사이버불링 피해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불링 피해와 가해행동과의 관계와 관련된 매개변인과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이라는 매개 및 조절변인을 확인

하였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매개 또는 조절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밝히는 것은 사이버불링 피해가 가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다.

## 참고문헌

- 가상준, 김강민, 임재형. 2013. SNS 사용문화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분쟁해결연구. 11(1): 159-208.
- 김경은. 2013.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미래청소년학회지. 10(4): 133-159.
- 김민정. 2010.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16(1): 27-53.
- 김재엽, 이순호. 2011. 청소년의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군산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6: 109-137.
- 김정호. 2002. 비합리적 인지책략과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2): 287-315.
- 김종길. 2013.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학업스트레스가 사이버 불링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9(1): 47-68.
- 남상인, 권남희. 2013. 청소년 사이버 불링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3): 23-43.
- 남수정. 2011. 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와 익명성의 조절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49(2): 63-74.
- 노재현. 2015. 학교폭력 준 것 맞나...교육부 조사 신뢰도 의문.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5/01/09/0703000000AKR20150109056800004.HTML>
- 도중진, 박광섭, 박행렬. 2012.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수립 용역. 충남: 충남대학교.
- 배병렬. 2011.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청람.
-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성도규, 김도희, 이윤석, 임성원. 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19: 79-129.
- 손민지. 2013. 국내 사이버 폭력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3): 6-22.
- 신성철, 백석기. 2014.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 한국치안행정논집. 11(1): 23-44.
- 오미영. 2008. 언어 폭력 확산과 미디어: 공격성에 대한 사회 학습 이론과 접화 효과를 중심으로. 현상

- 과인식. 32(3): 54-72.
- 오세연, 곽영길. 2013. 사이버 불링을 통한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0(3): 65-88.
- 유상미. 2010. 폭력 영상매체 노출에 따른 청소년 비행연구-사회학습 이론과 둔감화 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3: 41-71.
- 이교은, 정세훈. 2014.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31(2): 129-162.
- 이성식. 2005.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청소년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기존 요인들과의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6(1): 77-107.
- 이용택, 유난영, 주현주, 임승희. 2014.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3): 145-168.
- 이정혁. 2014.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전면 재점검. 머니투데이 뉴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41317511836697&VRC>
- 이정환, 이성식. 2014. 대학생의 사이버범죄피해가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반긴장이론의 검증과 그 성별차이. 한국청소년연구. 25(4): 137-158.
- 임성택, 김성현. 2007. 상담일반: 스트레스자극-학교폭력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통제 및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8(2): 451-466.
- 정여주, 김동일. 2012.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정서조절. 상담학연구. 13(2): 645-663.
- 조아미. 2014. 연구논문: 학교폭력에서 분노의 매개효과와 부모애착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1(9): 177-199.
- 조한익, 조민경. 2013.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913-932.
- 조운오. 2013. 사이버불링 피해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0): 117-142.
- 최진오. 2013. 일반 초등학생과 ADHD 성향 초등학생의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수준 비교조사. 특수 아동교육연구. 15(3): 121-140.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2013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 청재단.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소리없는 폭력, 사이버왕따의 진단과 해법 자료집.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2011 인터넷윤리문화 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홍지수. 2007. MBTI 성격유형과 직무스트레스 및 대처방법의 관계: IT업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induja, S. and J. W. Patchin. 2008. Cyberbullying: An Exploratory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Offending and Victimization. *Deviant Behavior*. 29(2): 129-156.

- Hinduja, S. and J. W. Patchin. 2010. Bullying, Cyberbullying, and Suicide.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4: 206-221.
- Jansen, A. S., X. Van Nguyen, V. Karpitskiy, T. C. Mettenleiter, and A. D. Loewy. 1995. Central Command Neurons of the Sympathetic Nervous System: Basis of the Fight-or-flight Response. *Science*. 270(5236): 644-646.
- Rigby, K. 2008. *Children and Bullying: How Parents and Educators Can Reduce Bullying at School*. Blackwell.
- Schirmer, A. and S. A. Kotz. 2006. Beyond the Right Hemisphere: Brain Mechanisms Mediating Vocal Emotional Processing.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0(1): 24-30.
- Vandebosch, H. and K. Van Cleemput. 2009. Cyber Bullying among Youngsters: Profiles of Bullies and Victims. *New Media & Society*. 11(8): 1349-1371.
- Williams, K. D., C. K. T. Cheung, and W. Choi. 2000. Cyberostracism: Effects of Being Ignored over the Intern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748-762.
- Ybarra, M. L., K. J. Mitchell, J. Wolak, and D. Finkelhor. 2006. Examining Characteristics and Associated Distress Related to Internet Harassment: Findings from the Second Youth Internet Safety Survey. *Pediatrics*. 118: 1169-1177.

---

**최진오**: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 실태가 ADHD증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2014)”, “초등학생의 ADHD성향과 학습양식과의 관계분석(2014)” 등이 있으며, 관심 분야는 ADHD, 학교폭력, 사이버불링과 같은 청소년 정서행동문제,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게임중독 등이다(choijin5@kmu.ac.kr).